

## 8 인터뷰-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임현석 동문(국어국문학 05)



동아일보 기자이자 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인 임현석 동문을 만났다.

(사진=김경민 기자)

## “편견의 성 무너뜨리는 대화의 시도 중요”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 소외된 삶에 주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함으로써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신문은 경희의 젊은 문학가들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동아일보 기자이자 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인 임현석 동문(국어국문학 05)을 만나 그의 글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물리적 거리가 심적 거리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쪽에 계속 살다 보니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심적으로도 가깝게 느껴졌다”며 임 동문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경희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던 그는 ‘창작이 강한 학교’라는 말을 듣고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학창 시절의 자신을 소위 말하는 괴짜 같은 느낌의 학생이었다

고 합니다. 수업을 마치면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가고, 자전거를 타고 험덕고개를 올라가곤 했다고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며 바쁘게 보냈던 학창 시절, 그에게 따뜻했던 기억의 공간으로 남은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임 동문은 “경희대 도서관 좋잖아요.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도 좋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쉴 때도 가고 그랬어요”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 기자, 소설가로서의 글쓰기

창작이 좋아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했지만, 번듯한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는 소설가의 꿈 대신 언론사에 취업합니다. 기자는 ‘글쓰기’를 일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설가와 공통점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된 이후에도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로서의 중요도는 덜할지 몰라도 그의 마음을 끄는 파편적인 순간들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그에게 소설을 쓰는 것은 본능이었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렇기에 취재하면서도 그는 소설 쓰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기사 100개를 취재하면 10개만 써라’라는 언론사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지면의 제약이 있어서 사회적 중요도를 따져 취재하고 배치하는 기사의 특성이 드러난 격언입니다. 임 동문은 나머지 90개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면의 숨겨진 진리를 탐색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소설 형식(이야기 형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웹 소설 플랫폼에 올리고 독립출판 해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신춘문예에도 계속 도전해왔습니다.

기자는 중요도 순서대로 세상의 일을 배열하고 소설가는 저마다의 원칙을 가지고 배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좋은 글의 원칙은 같다고 말합니다. “기사가 잘 읽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됐

다”라며 “기사나 소설 모두 쉽게 잘 읽히면서 세상의 일들을 왜곡하지 않고 담긴 진실을 재밌고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닮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앞으로 전통적인 기사 방식이 아니라 소설가의 상상력을 활용해 여러 가지 형식적 시도를 하며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사에서는 직업이 대체되고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는 형태의 기사가 나올 텐데 저는 그 속에서 대체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라며 수치로 표현되는 중요성은 탈해도 일상의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풀어보면 의미 있는 내용을 기사로 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 ‘우리’를 위한 대화법

이번 등단작인 <무료나눔 대화법>에서 그가 던지는 화두는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개인의 고립’입니다. 그는 “갈등이 심화하는 이유가 스스로 편견의 성을 쌓아서 그런 것 같다”며 “갈등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고립감을 스스로 인정, 인식하고 대화해보려는 시도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

야기를 던지고 싶다’는 어렸을 적 소설 창작의 동기를 그는 이제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임 동문은 소설을 쓰는 후배들을 향한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는 소설을 쓰고 싶은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학교수, 비평가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내 주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본인한테 더 좋을 수 있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걸 놓치고 다른 방식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는 싸움 붙이는 글이 아닌 싸움 말리는 글을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설가의 역할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에 심사위원들은 그의 작품을 보고 “예의를 갖춘 어떤 호의(好意)들은 마음을 열어도 좋을 용기를 내게 하고 그렇게 인물들은 조심스럽게 서로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한다”라며 그의 작품이 “우리 시대의 이 귀한 호의를 독자에게로 스며들어 가게 하는 작품”이라 말합니다. 그는 앞으로 기사와 소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도록 돕고 ‘우리’를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